

'아아 미안마여...' 광주전남작가회의의 詩로 민주화 연대 나선다

80년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게재한 김준태 시인 시작
고재중·김희수·김완·박관서 시인 등 5명 광주일보 릴레이 연재
오월문학제 결개시화로 제재...5월 광장과 5·18국립묘역 설치

미안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미안마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학살사건이 미안마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상황은 '역사는 반복되는가'라는 절망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80년 5월 당시 문인들은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5·18의 진실을 알리려 한다는 절박감에 '펜'을 들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명징한 진리를 그렇게 문인들은 몸소 실천했다.

이번에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이지담)는 '펜'으로 미안마 시민들과 연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억류된 미안마 시민들의 석방과 민주화 투쟁에 뜨겁게 연대하고자 작품으로 저항을 결의했다.

이번 연대 지지 운동은 김준태 시인의 시 '미안마에서 제비가 날아오른다'를 시작으로 19일까지 고재중·김희수·김완·박관서 등 모두 5명 시인의 작품을 광주일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지담 작가회의 회장은 이번 기획에 대해 "현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인들이 바로 문인인데, 미안마 학살 사건은 광주의 5월이라는 기시감을 주었던 것 같다"며 "총과 칼로 권력을 잡는 자들은 언젠가는 총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월 문학제 기간 동안에는 모든 회원들의 작품으로 더 굳건한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과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위한 결개시화를 오월광장과 5·18국립묘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미안마에서 제비가 날아오른다'를



1980년 5월 16일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집회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게재한 김준태 시인은 광주 5월이라는 원체험이 있는 우리에게 미안마의 참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경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에게 광주와 미안마는 동일선상에서 환기되는 민주화의 표상이었다.

80년 5월 당시 기업사에서 모든 보도 통제를 한 탓에 신문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군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게재하도록 강제했다. 당시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는 신군부의 기만적 술책에 저항하기 위해 신문 발행을 중단한 상태였다.

김 시인은 80년 5월 당시 상황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린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소개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5·18 항쟁 직후 문순태 부국장으로부터 '광주'에 관한 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나는 전남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틈틈이 시를 쓰는



지난달 28일 미안마 경찰 병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말라고 애원하는 안 누 따옹 수녀의 모습. /연합뉴스

평범한 사람이었다. 시 창작 부탁을 받고는 아내와 아이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치 신들린 듯이' 작품을 썼다. 머릿속에는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일념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광주 5월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가 탄생한다. 단 하루만에 150행 가량의 시가 써졌지만 안타깝게도 80%가 검열에 의해 잘려나갔다. 다행히 원문은 외신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됐고, 광주의 아픔을 알리는 기록자가 됐다.

김 시인은 자신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죽어간 광주 사람들의 무고한 넋이 마치 자신에게 입신해 시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

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은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 있나/ 우리의 혼백은 또 어디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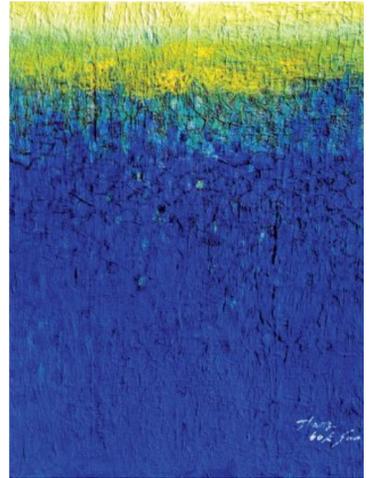
이번 광주일보에 시를 게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미안마 시민들이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며 "악마와도 같은 미안마 군부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총칼로 정의를 가져도 그것은 곧 모래성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18은 비록 뒤늦게 세계에 알려졌지만 이번 미안마 참상만큼은 전 세계 모든 양심세력들이 연대해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이든 다른 소통수단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안마인들과 연대해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쩐지 봄바람'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
17일까지 그룹전, 무등갤러리



장복수 작 '아침이 오는 소리'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장복수) 4번째 그룹전이 오는 1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원전은 무등갤러리 전시 지원 기획모임에 선정돼 열리는 전시다. 한국창조미술협회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도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그룹으로 이번 전시에는 회원 작품과 함께 초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의 주제는 '어쩐지 봄바람'이다. 코로나 19로 일상생활은 물론, 예술 활동 역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각자 성실히 작업한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강근선·김미희·박금례·손시유·윤상호·이준호·조민지·황애라 등 5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우리 곁에 다가온 봄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산동마을 등 남도의 봄날 풍경과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화사한 꽃과 나무, 소박한 들꽃들이 화폭에 담겼다.

전시에서는 또 한국창조미술협회 조병철 이사장을 비롯해 김강수·박영호·이연수 등 초대작가 24명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 전시는 오는 5월3일부터 30일까지 빛가람호수공원 스페이스아이스테이션에서 이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강하의 남도 풍경...다채로운 무등산 풍광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5월 9일까지 이강하 미술관

오는 4월1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이와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은 13회 비엔날레 주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과 연계, 과거의 예술과 예술가는 어떻게 현재와 미래로 기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고(故) 이강하 작가의 작품을 통해 던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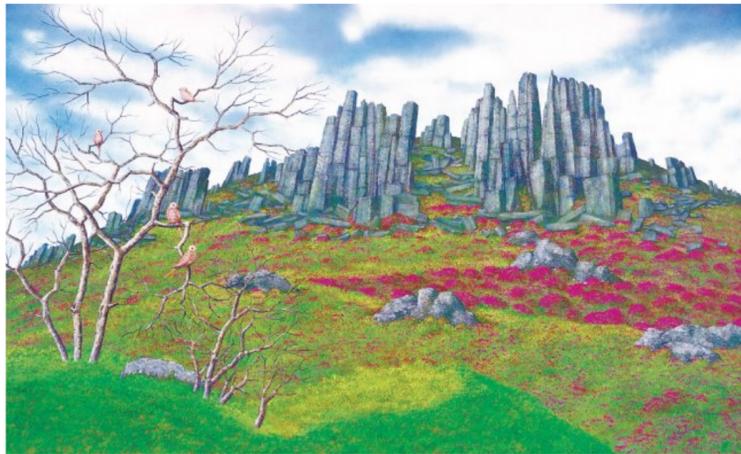
오는 5월 9일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시 'Re:born 1953-2021'전은 이강하의 남도 풍경과 무등산 대표작품(1970년대-2000년대 초반)을 통해 그의 화업을 다시 들여다 보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지금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거나 실재가 존

재하지 않는 작고 예술가에게 예술이 어떤 의미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작들은 예술가가 탄생하고 작고하기까지 마주한 지역의 풍경과 먹고 자란 향토음식, 사람들과 공존했던 사실들을 증명하듯 작업의 배경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 작가가 바라본 남도의 풍경들은 시선의 재구성 또는 영적으로 부활하거나 거듭난 초현실적 새로운 풍경을 시사한다.

전시에서는 어머니 산 무등산의 다채로운 풍광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생명감 넘치는 누드 작품, 자화상 등 다채로운 작품이 나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의 봄'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